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를 통해서 더 좋은 신앙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와 불편한 사람, 나를 모욕하고 반대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4:15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필요하다면 눈을 빼 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갈라디아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서두를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반대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의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반대할 때,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론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며, 소극적으로 변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다른 서신과 조금 다릅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평가로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만 앞세우고, 때로는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자기비하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축복하라.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주 속상하고, 서운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정말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었던 빌립보교회에도 토시 하나 차이 없는 축복을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나에게 오랫동안 힘이 되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과 나를 현재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모욕했지만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죽을 만큼 사랑하신 형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사랑과 축복으로 돌려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바울은 갈라디아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편지를 쓸까를 생각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4~5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최우선 두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전히 쓰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야 하며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솥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21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31(월)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주일)
출34-36	출37-39	출40,레1-3	레4-6	레7-9	레10-12	레13-14

QT

이번 주 QT 말씀

1/31(월)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주일)
눅 8:39-52	눅 9:1-17	눅 9:18-36	눅 9:37-50	눅 9:51-62	눅 10:1-16	눅 10:17-24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과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2.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 때문에 갈등을 겪은 일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할 건강한 자의식에 대해 나누어 주세요.
3.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